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2:1-16(현대인의 성경)

1. 말씀(Bible verse)

- 1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3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4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 5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 6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 7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시고
- 8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 9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란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 10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 1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 12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13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 14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 15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16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 묵상(Observation)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Message)

-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1절)

→ _____

- 자신은 심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 합니까? (4-5절)

→ _____

- 6절을 근거로 “심판의 날에 선행은 구원받는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그 근거는 어디서 오고 있나요? 내 마음과 행동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 _____

- 하나님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_____

-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_____

4. 적용(Application)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2:1-16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척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 본문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범한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방인과 달리 의롭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영적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의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의 원리를 따르십니다. 따라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겸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역설하는 이러한 심판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가지고, 선의 대리자가 되어 악에 저항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하여 그릇 행했음을 기억하며 혹여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열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6. 기도(Prayer)